

# '11월 태권도원으로 여행가자'

태권도진흥재단, 30일까지 입장료·모노레일 탑승료 할인·특별 프로그램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2021 여행가는 달'을 맞아 11월 30일까지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1 여행가는 달' 기간에는 태권도원 입장료 50% 할인, 모노레일 탑승료는 개인 당 1천 원 정액에 이용할 수 있다. 성인 기준으로 태권도원 입장료가 4천원에서 2천원으로, 모노레일 탑승료는 2천원에서 1천원으로 할인된다.

태권도원 상설시범공연에 더해 특별 프로그램으로 '태권북'과 '태권도원 마당극'을 운영한다. '태권북'은 전통북과 태권도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매 주말 15시에 진행되며 태권도원 매표소에서 10시부터 선착순으로 25명까지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올 여름 태권전에서 진행해 관람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은 '태권도원 마당극'은 T1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 평일 11시에 진행한다.

또한, 태권도원 객실을 일반고객이 태권도원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임시 개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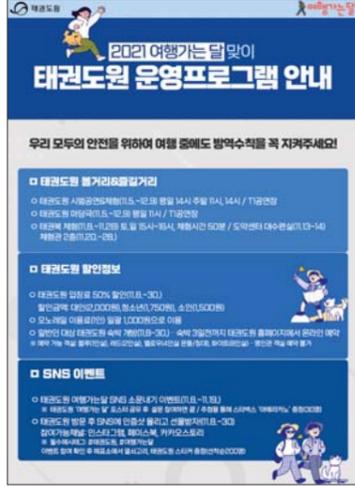
온·오프라인 이벤트로는 SNS에서 여행가는 달 포스터 공유하고 커피 한잔과 '태권도원 방문 인증하고 경품받자' 등을 운영해 음료 교환권과 태권도원 열쇠고리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티몬과 마이리얼트립 등을 통해 '태권투어' 상품도 판매한다. 태권투어는 'MY CAR I·II, MY BUS'를 선택할 수 있고 전라북도과 무주군, 덕유산 곤도라, 영동 풍류버스 등을 여행할 수 있다. 태권투어는 올해 5월 출시 후 2,600여명이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태권도원 방문객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드리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가 있는 태권도원에서 행복한 11월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 '여행가는 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원 누리집과 태권도원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태권도원 여행가는 달 포스터.

# 투어버스 타고 지리산 단풍길 여행

남원시관광협의회, 12월~12월 12일까지 사전예약제 무료 운영

남원시관광협의회는 단풍길 따라 남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길 투어버스'를 오는 12월부터 12월 12일까지(매주 수~일, 오후 1시~)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코스는 광한투어를 출발해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1,300여종의 허브자원이 있는 지리산허브밸리(자생식물원 등),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TVN '지리산' 드라마 세트장(흥부골 자연휴양림), 지리산 뱀사골(드라마 기획전시관) 등을 둘러보는 5시간 코스이다.

참가신청은 남원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www.namwontour.kr), 또는 카카오톡채널(남원시관광협의회), 페이스북(남원관광)으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운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착순 20명 이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와 열이 있는 사람은 탑승하지 못하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탑승해 남원의 알짜배기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해설해 주는 등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외에도 남원을 편하게 여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택시기사님과 함께하는 '남원관광택시' 이용으로, 개인 및 가족단위 맞춤형 여행 적합한 시스템이 1일 코스와 반나절코스가 있고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지리산' 드라마 세트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3개 코스에 드라마 촬영장을 중심으로 1코스를 추가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이용객들에게 택시 이용금액의 50%를 지원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양안환 관광과장은 "시 관광협의회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유동관광객 흡수를 위한 맞춤형 상품 등을 지속 개발 운영,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한편 양안환 관광과장은 "시 관광협의회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유동관광객 흡수를 위한 맞춤형 상품 등을 지속 개발 운영,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자봉센터, 사회적 가치 실현 협력

상호 인적·물적 자원 활용·교육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10일 전북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교육 지원 ▲상호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네트워크 구축 ▲기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센터는 연 4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의 마일리지 수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인 센터가 필요로 하는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등 상호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기선 센터장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자원봉사자들의 자기 진작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의 의미 있는 협약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기획팀(063-254-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10일 전북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부안초 관악부, 전국관악경연대회 초등부 대상

부안초등학교 관악부가 최근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된 제45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안초등학교(교장 이갑남)는 무려 108년의 역사를 가진 부안의 중심학교이며 오랫동안 혁신학교로 부안교육의 새로움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이다.

부안초가 자랑하는 관악부는 1981년 창단된 이후 계속하여 전국관악경연대회 및 각종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 이상을 수상하며 전북 예술

문화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57명의 관악대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연습하였고 이철경 지휘자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국관악경연대회 초등부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 부안초 관악부 학생들의 기쁜 수상 소식이 부안초등학교 교육공동체에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함께 선사하여 오랜만에 마스크를 넘어 숨통이 트이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